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만들기 국외연수

## 1 연수개요

<b>연수주제</b>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만들기 국외연수		
<b>주관부서</b>	사회복지과	구성인원	17명
<b>연수기간</b>	2019. 4. 24.(수) ~ 5. 2.(목) <7박 9일>		
<b>연 수 국</b>	캐나다		
<b>연수목적 [필요성]</b>	도시와 자연의 특색을 활용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 2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4. 24. (수)	인천 토론토 워털루	KE073 현지차량	09:35~09:45 09:45~12:00 12:00~14:00 14: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 토론토 출국</li> <li>토론토(ON) → 워털루 이동</li> <li>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견학</li> <li>토론토(Toronto) 신시청, 구시청 견학</li> </ul>
4. 25. (목)	킹스톤 퀘벡	현지차량	08:00~11:30 11:3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토 → 킹스톤 이동</li> <li>킹스톤 → 퀘벡 시티 이동</li> <li>뒤프랭테라스, 노트르담대성당 견학</li> </ul>
4. 26. (금)	퀘벡	현지차량	09: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퀘벡 역사자연문화유산 견학</li> <li>- 세인트 안 성당, 몽모란시 폭포 등</li> </ul>
4. 27. (토)	퀘벡 몬트리올	현지차량	08:00~12:00 12: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퀘벡 시티(QC) → 몬트리올(QC) 이동</li> <li>성요셉 성당, 자끄 까르띠에 광장 탐방</li> </ul>
4. 28. (일)	오타와 나이아가라	현지차량	08:00~12:00 12: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몬트리올 → 오타와 이동</li> <li>오타와 → 나이아가라 폭포 이동</li> <li>나이아가라 폭포, 스카이론 타워 견학</li> </ul>
4. 29. (월)	나이아가라 토론토	현지차량	08:00~16:00 16: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 견학</li> <li>나이아가라 폭포 → 토론토 이동</li> </ul>
4. 30. (화)	토론토	전용차량	08: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NET타워, 하버프런트 견학</li> </ul>
5. 1. (수)	토론토	전용차량 KE073	09:00~12:40 1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항 이동</li> <li>토론토 국제공항 → 인천 귀국</li> </ul>
5. 2. (목)	인천	항공	~16:20	인천 국제공항 1청사 도착

### ③ 방문지 정보

- 캐나다는 남부에 위치한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도시로 외곽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보존이 자되어 있어 아주 멋진 자연환경 자랑하고 있음.

#### [토론토(Toronto)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는 1615년 유럽의 탐험가 에티엔 브레일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곳으로, 인디언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91년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1834년에 공식적으로 합병되었고, 1873년에 독립적인 캐나다 연방이 성립되었습니다. 5대 호의 하나인 온타리오호에 위치한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며, 메트로폴리탄 토론토는 토론토(Toronto), 노스요크(North York), 요크(York)의 세 도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캐나다의 경제, 통신, 운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계가 주를 이루며, 100여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약 70여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시청 현대적인 건축양식으로 돋보이는 토론토 신시청]

토론토 신시청은 토론토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축물 중 하나로 99m 높이의 이스트 타워와 20층, 79미터 높이의 웨스트 타워, 이렇게 두 개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빌딩의 생김새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중앙에는 의회 회의장이 있어 균형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많은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으며, 주변에 있는 작은 호숫가는 피크닉 명소로, 겨울에 호수가 얼면 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시청 건물은 1965년 전 세계 42개국 520여 개의 출품작이 경합을 벌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된 것입니다.

###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구시청]

토론토 구시청은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 깊은 곳으로 신시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사로마와 킹 에드워드 호텔 등을 만든 건축가 에드워드 제임스 레녹스가 디자인했으며, 약 10년의 기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구시청 건물이 완성된 1899년 당시에는 토론토 시내 전체에서는 물론 북미에서 가장 큰 시정(市政) 건물이었습니다. 1965년 신시청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온타리오 정부의 법원 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토론토 퀸즈파크를 둘러싼 주 의사당]

1892년 세워진 온타리오 주 의사당은 갈색의 고풍스러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내부에는 에드워드 7세, 빅토리아 여왕 등의 사진과 함께 온타리오 의장을 지냈던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이 건물은 1909년 화재로 인해 건물의 일부를 새로 지었는데, 새로 지은 곳의 바닥은 목조가 아닌 대리석으로 지어져있고, 대리석의 기둥에서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학, 토론토 대학교]

영국 국왕에 의해 세워진 토론토 대학교의 세인트 조지 캠퍼스는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4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6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1만여 명의 교수가 있는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입니다. 프레데릭 뱅팅, 노벨평화상을 받은 레스터피어슨 등 노벨상 수상자를 여럿 배출한 명문대학교로, 약 1천4백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북미 도서관 4위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 [프랑스 전통이 살아있는 퀘벡]



퀘벡 주의 수도인 퀘벡시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유럽 열강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세력 다툼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북미의 “지브랄타”라고 불립니다. 이런 이유로 퀘벡시에는 항구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돌로 된 성벽과 군사 요새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의 95%가 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통의 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퀘벡시는 세인트로렌스강과 로렌시앙 산맥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 원주민과 함께 프랑스와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영위하면서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세인트로렌스 강은 퀘벡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서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세인트 로렌스 강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무수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1690년 프랑스는 영국군을 물리쳐 퀘벡시를 프랑스령으로 만들었으나, 1759년 아브라함 평원 전투로 인해 영국군에게 패해 영국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774년 파리강화조약 체결 이후 퀘벡에 살고 있는 프랑스계 주민들은 프랑스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고, 불어 사용 권리를 보장받아 프랑스 문화의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1775년 이 지역에서의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영국군은 방심하지 않고 성벽을 쌓아 견고한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퀘벡은 북미에서 유일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되었고 이것이 퀘벡시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항구도시 퀘벡은 프랑스 문화와 언어가 숨 쉬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로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985년 유엔의 세계유산문화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프랑스풍이 느껴지는 몬트리올(Montreal)]



1976년 8월 1일 해방 후 한국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땀던 경기가 바로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입니다. 당시 양정모 선수는 레슬링에서숙원의 한국 첫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몬트리올은 1642년 프랑스의 본격적인 식민지 화가 이루어졌으며,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701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활발한 모피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763년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면서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으나, 1774년 제정된 퀘벡 법에 의해 프랑스의 문화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성립된 이후에는 경제적 요충지로 부상하였고, 19세기 말에는 유럽 각국의 이주민이 모여들어 혼합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 [오타와(Ottawa) 튜립과 수선화로 장식된 캐나다의 수도]



봄에는 튜립의 도시로, 가을에는 단풍의 도시로 자태를 뽐내는 도시 오타와(Ottawa)는 현재 캐나다의 수도로 연방 정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캐나다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수도 오타와(Ottawa)의 면적은4,663km<sup>2</sup> 밖에 되지 않는 점이 특이합니다. 1840년 캐나다는 UPPER CANADA와 LOWER CANADA로 분리되어 있다가 1841년 합병되어 최초의 수도로 정해진 곳은 온타리오주의 킹스턴(Kingston)이었습니다.

그후 많은 갈등 끝에 1858년 두 지역의 접점인 오타와(당시 지명 바이타운)를 빅토리아 여왕이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영국이 미국과의 거리를 의식하여 오타와(Ottawa)를 수도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5월에 네덜란드에서 보내오는 튜우립과 수선화로 아름답게 장식되는 시기에 오타와(Ottawa)로의 여행을 계획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타와 강(Ottawa River)을 사이로 퀘벡주 헐(Hull)로 다리를 건너면 개티노파크(Gatineau Park)의 웅장한 단풍나무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화려함보다 수수한 미술관과 공원이 풍부한 오타와는 여전히 캐나다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특색있는 곳입니다.

국회의사당 팔러먼트 힐에 우뚝 서있는 의사당, 리도운하 1832년 완공되어 북미대륙에서 만들어져 이용하고 있는 최고로 오래된 19세기 운하

### [국제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 관광지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북동부의 캐나다와의 국경에 위치합니다. 미국 쪽 폭포의 높이는 56m, 폭은 335m이며, 캐나다 쪽의 폭포는 높이 54m, 폭 610m의 규모를 자랑하고 두 폭포의 사이에는 고트섬(Goat Island)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빙하기 이후 나이아가라 폭포 절벽의 하류 11Km 지점에 있었던 폭포가 연간 약 30Cm씩 침식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명으로 하여금 야간에도 관람이 가능하며, 주변에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습니다. 이곳 나이아가라는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연중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으며, 자연경관, 쇼핑, 문화체험, 캠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 [캐나다와 미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일대의 수력발전소]

나이아가라 일대에는 폭포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강물 전환 협정(Niagara River Water Diversion Treaty)에 의해 지어진 수량 조절 댐과 더불어 4개의 캐나다 수력발전소(토론토, 나이아가라폭포, 온타리오, 아담백경 수력발전소) 2개의 미국 수력발전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강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Niagara on the Lake)는 캐나다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입니다. 1812년 캐나다가 미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는 주요 격전지였으며, 재건한 후 잘 보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역사 유적지와 박물관, 골프 코스, 공원, 농장, 포도주 양조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은 마을이 유명한 이유는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Bernard Shaw)입니다. 마을 어디에서든지 버나드 쇼와 관련된 상점, 레스토랑 등을 만날 수 있고 쇼 페스티벌(Shaw Festival)이 펼쳐지는 4월에서 11월에는 버나드 쇼의 연극을 관람하려는 많은 사람들로 마을이 가득 찹니다.

나이아가라 아이스와인 공장 - REIF 와이너리 아이스와인 테이스팅 및 구매할 수 있는 아이스와인 공장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지역에서 1977년에 탄생한 REIF 와이너리는 양질의 아이스 와인을 나이아가라에서 생산하는 곳입니다. 와인 엑스포 및 온타리오 주의 올해의 와인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일본 및 이탈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금상을 수상한 최상의 아이스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토론토 다운타운]

캐나다의 모든 상업, 금융,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이 곳은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 최대의 인구가 모여 살지만, 깨끗하고 정적인 이미지가 이지 역만의 매력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

### 1. CN타워

끝이 안보이며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CN타워. 단연 토론토의 명소가 된 곳으로 토론토의 전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여느 타워와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에는 360도 회전하는 레스토랑이 있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CN타워 전망대에서 인상적인 것은 글라스 플로어, 바닥이 전부 유리로 만들어져 그 위를 걸으면 마치 깨질 것 같은 아찔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누워서 아래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면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장면이 연출된다.

### 2. 하버프런트 (Harbourfront)

유니언역쪽에서 남쪽으로 온타리오 호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곳의 최대 매력은 바로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 3. 온타리오 갤러리 (Art Gallery of Ontario)

오타와, 몬트리올 미술관과 함께 캐나다 3개 미술관으로 꼽히고 있는 온타리오 갤러리. 이 곳에는 말만 들어도 유명한 화가들 고흐, 피카소, 모네, 드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인들의 작품, 원주민(이누이트) 아트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볼 수 있다. 이 갤러리를 유명하게 한것은 바로 조각가 헨리무어(Henry Moore)의 작품을 전시한 것인데, 청동으로 만든 브론즈, 에칭, 목각등의 800여점이 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 ④ 기대효과

- 세계를 대표하는 경제도시이자 수준높은 교육과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문화적인 인프라가 풍부한 선진도시 벤치마킹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순천을 만들고자 함